

경제관계장관회의 **부총리** 모두발언(11.14)

- 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☐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.
- ☐ 지난 2년 반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,
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.
- ☐ 그러나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,
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
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.
 -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
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습니다.
- ☐ 금융·통상·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
본격 가동합니다.
 - 오늘 아침 ‘거시경제·금융현안 간담회’를 통해
금융·외환시장을 점검한 데 이어,
 - ‘글로벌 통상전략회의’, ‘대외경제 자문회의’ 등을 통해
업계·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
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.
- ☐ 무엇보다, ‘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’를 중심으로
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
기회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.
- ☐ 특히, AI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여
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.

[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]

□ 변화하는 산업·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- 먼저,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*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「K-방산 MRO 육성계획」을 내년 중 수립하겠습니다.

* Maintenance, Repair and Overhaul : 유지·관리, 보수, 완전분해 점검·수리

- 또한,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('25~'29년)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.
-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,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여 항목*도 검토합니다.

* 현재 요양시설 비급여는 ①식사재료비, ②상급침실료, ③이·미용비에 한정

[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]

□ 대외여건 변화 대응뿐 아니라, 대내부문의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
□ 특히,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, 제도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습니다.

-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%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, 세제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, 은행·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하겠습니다.

[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]

-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.
- 올해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결혼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.
 - 과도한 추가금 부과행위가 줄어들도록 서비스 세부가격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
 - 먼저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협력해 내년부터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.
 - 향후 결혼서비스법을 제정하고 가격공개 지침을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.
 - 계약과 이용 단계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.
 - 내년 3월까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계약 시 세부가격과 환불·위약금 규정을 상세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또한, 소비자의 업체·품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공개 업체 현황과 선택품목별 소비만족도 정보도 제공합니다.
 - 오늘 발표한 결혼서비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심층조사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
- 끝으로, 오늘은 '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'입니다.
 -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, 앞으로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.
-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(국토부 장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